

조선이공대 해양경찰과 교수 된 광주동부경찰서 김운곤 형사팀장

“30년 현장경험 예비 경찰들에 전수”

“30년간 경찰관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배운 이론을 잘 결합해 최고의 경찰인력을 배출해 내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현직 교수로 임용돼 화제다. 그 주인공은 광주동부경찰서 김운곤(54) 형사팀장. 그는 30년간 의사과와 형사과에서 경찰관으로 활약하다 오는 2010년 3월 1일자로 조선이공대학 해양경찰과 전임교수로 임용된다. 지난 1980년 경찰관에 임명된 후 30년간 현장을 누비며 체득한 경험을 이전 미래 경찰인력 배출을 위해 경찰배지를 내려놓게 된 것이다.

조선이공대 해양경찰과는 항만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해양경찰로 일원화 될 예정이면서 해경 인력이 늘어날 것을 대비, 전문 해결을 키우기 위해 2010년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김 팀장은 해양경찰과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까지 이론 위주다 보니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법학과를 나와도 고소장을 재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실무교육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경찰관으로 활동하던 김 팀장은 자기계발을 위해 지난 1989년 조선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공부하다보니 점점 욕심이 생겼고 결국 동대학



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현장에서 배운데에는 한계를 느꼈고 미국 FBI 단기연수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요원들을 보고 많은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갖춘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FBI를 보고 우리 나라 경찰들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

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경찰들의 실력이 좋아지면 국민에게서 신뢰는 저절로 따라온다”며 “현재에서 안주하지 말고 시간을 끼게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찰만 하던 김 팀장이 학생들을 가르치기엔 벼겁지 않을까하는 목소리는 기우에 불과하다. 경찰 생활을 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김 팀장은 조선대 법학과와 YWCA가정폭력상담원 등에서 강사로 10년간 활동하며 꾸준히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론은 물론 경찰 실무론 등의 책도 50여권 가량 집필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또 실패해가면서 경험한 이론인 만큼 상황에 맞는 즉답해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김 팀장의 교수 임용 소식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졌다. 동료들의 법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던 만큼 인재를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경찰을 키워내는 교수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대 또한 크다.

김 팀장은 “많은 책을 쓰면서 시험문제 등을 분석했기 때문에 경찰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을 할 자신이 있다”며 “실력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경찰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전 전남본부 요양원 훌체어·쌀 전달



한국전력 전남본부(본부장 정종필) 사회봉사단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성심의 집과 동명노인 요양원 등에 550만 원 상당의 훌체어, 쌀 등을 전달했다. /위직령기자 jrw@

광주은행 소외계층 100가구에 연탄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우수 중소기업인 ‘소호명가(所湖名家)’ 업체들과 함께 광주지역 소외계층 100가구에 사랑의 연탄 2만장을 전달했다.

공무원이 지적학 박사 2호 됐다

광양시청 오창석씨



오는 5년간 광양

시에서 발생한 개별 공시지 가 관련 민원, 실거래 신고금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 공시지가 산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방안,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의 설문 등을 종합 분석해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079@

역경딛고 사장된 ‘장흥 대장금’

자활센터 성공우수사례 금상 김봉희 씨



장흥군 평화리에 위치한 자활사업 단 ‘행복을 나누는 급식센터’ 대표인 김봉희 씨(여·55·사진)는 유통으로 고생하던 전업주부에서 연매출 2억원의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어엿한 사장으로 극적인 변신을 이뤘다.

21살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데다 10년 간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자를 간병하고 장남인 남편 밑으로 여덟 남매를 돌보느라 마음의 병을 얻었던 듯 싶었다.

그래도 병원을 꾸준히 다닌 덕에 우울증을 극복했나 싶었는데 1998년 둘째 아들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2년 뒤에는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교도소 신세까지 져 옆친데 덮친 격이 됐다.

첫째 아들의 변호사 비용과 학급금을 마련해지고, 국가 못지 않게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역의 매력적인 장소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또 그것을 도시의 생산요소로 해 도시 이미지를 창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 마케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도시마케팅…’ 주제 포럼



국가 못지 않게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역의 매력적인 장소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또 그것을 도시의 생산요소로 해 도시 이미지를 창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 마케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박도영 이사장은 “도시 간 경쟁이

을 마련해느라 8 천만원의 빚더미에 앓았을 때 정신이 번뜩 들었다. 그때서야 집 안이 풍비박산이 나겠다는 생각에

장흥지역 자활센터를 찾았다.

2004년 센터에서 간병도우미로 일

을 시작했고 2년 뒤에는 함께 어려운

처지였던 동료 5명과 급식사업단을 꾸

려 올해는 연매출 2억원의 기업체로

키워냈다. 김씨의 성공이야기는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 참가자 가운데 우수자활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가 수상하는 금상을 받았으며 지난 17

일 발간된 자활수기집 7집에도 수록됐다.

/장흥=김용기자 kykim@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 광주본부(본부장 김천국)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연탄 3천장을 과일·쌀 등을 마련, 최근 관내 불우이웃 7

가구에 전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 광주본부(본부장 김천국) 회원 30여 명은 19일 오전 광산구 오룡동 아름다운

기자 첨단점을 찾아 물품을 기증하고, 이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했다.

금융노조 농협 광주본부 불우이웃 연탄



광산시민포럼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증



광산시민포럼(공동대표 윤봉근 전 교육위원회 의장) 회원 30여 명은 19일 오전 광산구 오룡동 아름다운 기자 첨단점을 찾아 물품을 기증하고, 이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했다.

조선대 치의학대학원 기금 기부자 송년회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최근 치과대학 1층 교수회의실에서 치대 별전기금 고액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하고, 별전기금 현황판 제막식을 가졌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템플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정영하(조경사업)·전현옥씨 장남 진명군 유휘문(외향선사업)·박영희씨 장녀 원의양=26일(토) 오후 1시 순천 미림 웨딩하우스.

동창·동문회

▲광주 송일고 25회 동창회 ‘2009 송년의 밤’(회장 김종석)=21일(월) 오후 6시30분 신양파크호텔 1F 에메랄드홀, 010-3605-6009.

▲조선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신홍수)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회=23일(수) 오후 6시 메리어트웨딩홀, 062-228-0197~8.

종친회

▲동래정씨 시조산 동지향사(광

▲광주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미현숙(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희망=광주 북구 우산동 자답역리학회, 062-263-0208.

▲희귀화폐 전시회=31일까지 광주공항지하철역 역무실 앞. 은대(세계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시대) 때 동물들에 만든 골제제작회 등 33년간 직접 수집한 화폐 500개 전시.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세소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6495-5728.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마술학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홈페션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jc.kr 또는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김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 문화센터 062-671-3693.

▲광주FC 축구회원 모집=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원형, 매주 토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7-4000.

▲강정애씨 별세 김홍규·옥배·연배·유심·명순·명화씨 모친상 =발인 22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민근씨 별세 춘길씨 부친상 =발인 21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진양후씨 별세 해수·학수·선화씨 부친상 =발인 21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강연순씨 별세 남상준·상근·상록씨 모친상 =발인 21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